

# “참혹한 박해 속 인간의 사랑 그렸죠”

### 김탁환 작가 장편 ‘사랑과 혁명’ 가톨릭문학상 본상 수상작 선정 곡성서 시작된 정해박해 사건 그려 곡성으로 귀촌... 소설에 삶 투영

“작가라면 신과 인간의 문제는 큰 화두 가운데 하나다. 곡성과 인연을 맺으며 ‘정해박해’를 알게 됐는데 언젠가 소설로 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827년 곡성에서 발발한 천주교 박해인 ‘정해박해’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장편 ‘사랑과 혁명’ (전 3권-해냄)이 제27회 가톨릭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 작가는 통화에서 “정해박해는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오랫동안 잊힌 역사로 남아 있었다”며 “곡성에서 시작된 박해가 한양까지 확산해 많은 이들이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작가에 따르면 500여 명 교인들이 체포되고 무자비한 고문에 처해졌다. 다른 세상을 꿈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거나 투옥되는 것은 아반의 역사에 다름아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원목모임 단체를 만나러 간다는 작가는 “3권이 되는 분량을 읽은 독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이면 간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남 밀양에 다녀왔으며 한달에 한번 정도는 독자들 모임을 간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가톨릭문학상은 가톨릭적 신과 인류 보편적 진리를 문학작품으로 발굴해 왔다. 가톨릭신문사가 제정 운영한다.

김산춘 신부, 구중서 평론가, 신달자 시인, 구자명 소설가, 우찬제 평론가 등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은 단지 정해박해 사건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천주교 순교사에서 머물지 않는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사랑 없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독자를 오래 설득하게 하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지난 2018년 곡성과 첫 인연을 맺고 2021년 곡성에 내려와 터를 잡은 김탁환 작가에게 이번 수상작 ‘사랑과 혁명’은 남다른 작품이다.

특히 김 작가 속소가 박해 사건 주요 공간인 곡성 성당 바로 뒷마당과 이웃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



김탁환 작가가 곡성 정해박해를 모티브로 쓴 장편 소설 ‘사랑과 혁명’으로 제27회 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을 끈다. 곡성성당은 정해박해 진원지 육터성지에 1958년 설립됐다.

감옥이 있던 자리에 성당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이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라는 성경 속 구절이 환기된다. ‘역사적인 공간’과 집이 인접해있다는 것은 생생한 현장감을 추동했을 것 같다. 이와 달리 흑역사 근접점으로 상상력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장편을 써온 작가의 내공에 비추면 그러한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터다. 집필실은 숙소에서 걸어서 40분 정도의 거리인 삼진강 인근에 있다. 작가는 집필실을 오가며 끊임없이 소설의 열개를 그리고 인물들을 창조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곡성과의 인연이 닿은 후 일명 ‘사회파 소설’을 쓰면서 안전과 생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농촌으로 내려갈 마음을 굳혔던 터라, 그해 곡성에 내려간 기회에 곡성성당과 더불어 우

기 교우촌이 있던 당고개 덕실 마을 등을 둘러보게 됐다.”

소설은 ‘들녘’과 ‘아가다’의 사랑 이야기를 기본 모티브로 전개된다. 또한 용기를 구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일군 천주교인들의 신앙과 당대의 역사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였다. 신유박해(1801년)와 을해박해(1815년)를 피해 내려온 천주교인들이 덕실마을과 미륵굴 일대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들이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이들은 신분을 숨긴 채 용기를 구워 팔며 교우촌(校友村)을 이뤘다.

작품에서는 곡성의 자연이 오롯이 담겨 남도의 풍광과 향토성이 느껴진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곡성의 산빛은 물론 강바람, 새소리,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있어 곡성의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었다”는 그는 마을활동이나 생태활동도 여느 지역에 비해 잘 되는 곳이라고 했다. 직접 논농사, 밭농사도 짓는다. 밭이 100평정도 되는데 ‘미실란’ 이동현 대표에게 배웠다는 것이다. 이번 소설 1권 ‘농부의 들녘’에는 이곳에서의 삶이 일정 부분 투영돼 있다.

작가는 ‘미실란’ 이동현 대표와 생태활동 등을 펼치며, 생태 워크숍을 비롯해 이야기 학교 등 주민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책을 토대로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을 열고 마을 책방지기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그것도 연고지도 없는 곡성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소설 쓴다고 대학 교수도 그만두는데 시골로 가는 것쯤이 무슨 대수인가 하는 눈치였다”며 작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언젠가는 전업작가의 길을 가리라는 것을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저는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다. 기간지에 단편을 내고 그것을 묶어 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편 소재를 찾고 그것에 3-4년 집중하는 편이다.”

한편 경남 진해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국문학 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 과정에서 고전소설을 공부했다. 해군사관학교, 건양대, 한남대, KAIST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31권의 장편, 3권의 단편, 3편의 장편동화를 썼다. 특히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뉴에이지 음악’에 스며들다

### 제주서 활동 공성환 피아니스트, 다음달 4일 광주 디엠홀서 공연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을 펼쳐오고 있지만, 제 음악을 사랑해 주는 ‘첫 번째 팬’을 만났던 곳이 광주였기에 ‘광주공연’은 저에게 유독 의미가 깊습니다. 아티스트에게 첫 번째 팬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죠.”

제주에서 사는 뉴에이지 작곡가·피아니스트 공성환 씨가 이번 광주 공연을 기다린 이유다. 공 씨는 오는 5월 4일(오후 5시) ‘노을 속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광주 디엠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명은 그가 2021년 발매한 피아노 연주 앨범 속 동명의 타이틀



뉴에이지 작곡가·피아니스트 공성환. (공성환 제공)

곡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그는 신인 시절 자신의 ‘첫 번째 팬’을 광주에서 만나게 됐고, 그로부터 음악활동을 지속할 힘을 얻었다고 한다.

제주 한라대 음악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공성환은 2007년 제25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KBS 다큐드라마 ‘중첩’, ‘오마이가든’, ‘99세 행복한 정원사’ 등의 OST를 작곡한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공연은 ‘설레임’을 비롯해 ‘Missing you’, ‘한 날에 사라진대도’, ‘그리다’, ‘별을 가두다’ 등 곡들로 채워진다. 타이틀곡 ‘노을속으로 스며들다’와 ‘사라지는 것들’, ‘별을 가두다’, ‘아버지의 벤

치’ 등도 들려준다. 노래들은 뉴에이지 음악의 영향을 받은 탓에 명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밖에도 피아노 솔로곡 ‘Love affair’,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사랑의 발라드’, ‘Walk in the rain’ 등 감미로운 곡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성환은 “제주에서의 활동을 벗어나 처음으로 타지역에서 공연을 했던 곳이 ‘광주’인데, 이번 기회로 다시 인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감수성이 가득한 피아노곡들이 관객들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1만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읽는 맛 쏠쏠한 ‘애송시 낭송대회’

### 광주서구문화원 6월18일 개최...다음달 17일까지 예선 접수

주옥 같은 시는 눈으로 읽는 맛도 있지만, 목소리로 읽는 맛도 쏠쏠하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시를 읊으면서 그 뜻을 깊이 음미하곤 했다. 저마다의 목소리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창작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가 광주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주최하는 ‘제21회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가 오는 6월 18일 열린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예선 접수는 오는 5월 17일까지다. (서구문화원 누리집에 참가 신청 자료가 게시돼 있다.)

정인서 원장은 “이번 애송시 낭송대회는 시 낭송을 매개로 시민들이 문화를 함양하고 좋은 시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낭송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창작 행위’로 볼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선 접수는 시 낭송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국대회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참가신청서와 애송시 낭송 녹음파일, 낭송시(등단 시인의 시) 원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자 발표는 오는 5월 24일 있을 예정이다.

본선은 오는 6월 16일 빛고을극전수관에서 진행되며 대상 1명에 1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부분별 부상과 상장도 있다.

임수연 담당자는 “요즘은 시를 쓰는 일반인들이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시를 낭송하는 이들도 많이 늘었다 만큼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낭송을 통해 시가 주는 힐링과 아울러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원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공연예술단체 창작·운영비 지원

### 전남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2차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202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차 공모를 오는 22-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의 상생협력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 단

체들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선정된 단체는 전남 소재 공공 공연장과 협약한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및 레퍼토리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

하며 ‘육성’ 유형에 4000만원, ‘집중’ 유형에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육성’ 유형은 창작초연 작품 개발 및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필수. ‘집중’은 창작초연 작품 개발, 레퍼토리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필수 수행) 이와 맞물려 오는 18일(오후 3시) 전남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전문가 강연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공모접수 및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단 문예창작진흥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